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환지본처

현소장처 LA카운티박물관측, 조계종과 반환 양해각서 체결

한국 전쟁 후 해외반출 추정
종단 환수 사례 중 최대규모
올 7월 중 한국 반환 예정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전쟁 직후 사라졌다가 미국의 박물관에서 발견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가 원소장처인 신흥사로 돌아온다. 이를 소장하고 있던 LA카운티박물관과 조계종이 성보반환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문화교류에 대한 상호협의를 도출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혼란했던 한국전쟁 전후시기 해외로 반출된 성보가 종단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청,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등 각계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현 소장처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선의가 더해져 환지본처에 성공한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과 LA카운티박물관(관장 Michael Govan, 이하 LACMA)는 6월 16일 LACMA측이 소장 중인 신흥사 성보에 대한 반환을 포함해, 양 기관의 우호협력 및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1954년 신흥사를 떠나 해외로 반출됐던 신흥사 '영산회상도' 1점과 '시왕도' 3점이 66년만에 원소장처인 사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국외문화재 환수 형태 중에서도 우수사례로 꼽힌다. 성보 환수를 위한 종단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 '문화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공감한 LACMA측의 결단이 더해져 맺은 결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보 환수를 계기로 향후 지속적인 우호협력을 약속함으로써 보다 공고한 문화교류의 토대를 구축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평가다.

종단과 LACMA는 지난 2015년부터 불교문화재 반환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비롯해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2017년 동화사 염불암 '지장시왕도' 반환이 이뤄졌으며,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2020년인 올해에는 LACMA측이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를 선의로 종단에 이양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해외반출 문화재 중에서도 유독 수난을 겪었다. 한국전쟁 직후 여섯 조각으로 나뉘어져 미국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미군이 찍은 사진기록을 통해 1954년 5월까지 신흥사에 봉안돼 있었으나 1954년 10월 경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54년 5~10월 경 미군에 의해 미국으로 반출됐다는 가설이 합리적 추론으로 인정되는 이유다.

여섯조각으로 찢겨지고 훼손된 '영산회상도'는 개인이 보관하다 1998년 LACMA가 구입했고, 박물관 측이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2010년 진행된 '영산회산도' 복원에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했다. 국내 보존처리 전문가인 박지선 용인대 교수가 정재문화재 보존연구소와 함께 보수를 진행해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 조계종 문화부는 "LACMA의 한국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보존 노력이 아니었으면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측은 해외반출문화재 환수 사례 중에서도 모범적인 형태인 이번 반환이 한국과 미국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2020년 7월 중에 불화를 한국으로 반환하고, 8월에 환수 고불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이번 신흥사 불화의 반환은 종단의 환수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이자 성보문화재 환수를 위한 종단의 다양한 노력이 이룬 성과"라며 "종단은 앞으로도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에 흩어진 성보문화재의 현황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외의 여러 기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LACMA에 신흥사 '영산회상도' 및 '시왕도'의 보존처리 등을 지원하고 반환을 위해 많은 자문을 아끼지 않은 문화재청과도 국외 환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4년경 반출돼 여섯조각으로 찢긴 채 미국 LA카운티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비운의 성보다. 조계종과 박물관이 환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66년만에 원소장처인 신흥사로 반환될 예정이다.

신흥사 '영산회상도' 환수일지

1954년	6~10월 반출 추정
1998년	美 LACMA, 개인소장자로부터 구매
2007년	한국인 큐레이터가 박물관 수장고서 발견 정우택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 감정 후 원소장처 신흥사 확인
2010년	박지선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등 복원
2011년	복원 후 LACMA 한국관서 특별전시
2015년	조계종·신흥사, LACMA측에 성보 반환요청 및 구입경로 확인메일 등으로 정보교환
2016년	美서 LACMA와 1차 협의 시작으로 수차례 접촉
2019년	2차협의 및 실무회의
2020년	LACMA 이사회통과, 환수 양해각서 체결

'승보공양', 27대 중앙신도회 화두로

주윤식 조계종 제27대 중앙신도회장 선출

"승보공양 활성화를 위해 삼보호지의 역할을 당당히 담당하겠습니다. 신도의 가장 큰 역할인 삼보호지와 조계종지 신수 봉행에 충실하고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서 열반까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27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스님들의 노후복지와 수행지원을 위한 승보공양을 화두로 정진한다. 주윤식 신임 중앙신도회장은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서 제27대 중앙신도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상하수처리 교반기 제작업체인 우진 대표인 주윤식 신임 중앙신도회장은 1992년 제8교구본사 직지사를 재적사찰로 등록 후 1993년 법상 스님을 전계사로 계를 받았다. 특히 2017년 조계종 제8교구 신도회장으로 취임 후 적극적으로 펼친 승보공양 운동이 이번 중앙신도회장 선출의 원동력이 됐다.



주윤식 제27대 신도회장(사진 오른쪽)이 6월 25일 대의원총회서 선출 직후 임명장을 받고 있다.

주 중앙신도회장은 '출가에서부터 다비까지'를 모토로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1사람이 하루에 100원씩 모금하는 운동을 벌였으며 8개월 만에 후원자 1000명을 모집했다. 이를 통해 2019년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 신도회장은 "무엇보다도 수행과 포교 전념에 물심양면 지원해야 한다. 승보공양 제도의 기틀을 다진 경험으로 이 제도가 종단에 활성화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신도회장은 전임 이기흥 신도회장이 제안해 정착시킨 대국민 나눔문화 캠페인 '행복바라미'의 계승발전과 자원봉사단 '반갑다 연우야' 활동 강화 등을 통한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대강백 지흥당 백운 스님 원적

6월 19일 담양 용흥사서 원적
범어사·백양사 문도 원로장

범어사, 송광사 등에서 후학들을 지도해왔던 대강백 지흥당 백운 스님<사진>이 6월 19일 오후 6시 40분 전남 담양 용흥사에서 원적했다. 세수 87세. 법납 77세.

백운 스님은 1934년 전남 장성군 불이면에서 태어났다. 만암 대종사의 조카이자 인곡 대선사의 사촌 형안 부친의 영향을 받아 강진 화방사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다가 1944년 석산 스님을 은사로 백양사에서 출가했다.

1947년 광주 서중과 광주사범을 졸업한 후, 만암 대종사와 용성 대종사의 친선약조에 의해 범어사 강사로 있던 석산 스님을 백양사로 돌아오게 하고, 백운 스님은 1952년 범어사 동산 대종사의 상좌로 입실했다.

동산 대종사의 시자로 3년여 간 시봉하며 1952년 범어사 강원에서 수학하고 1955년 통도사 강원에서 수학했다. 이후 1958년 해인사 강원의 전신인 마산대학에 입학해 월운·지관 대종사와 함께 동기동문으로 공부하고 1962년 졸업했다.

1971년부터 1977년까지 화엄사 강주를,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범어사 강주를 역임했다. 1980년 송광사 구산 대종사의 요청으로 강원을 개설하고, 1982년부터 1988년까지 범어사 강주를 맡아 후학을 가르쳤다.



백운 스님 영결식에서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문도 대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운 스님은 평생 저술에도 진력했다. 한국불교사와 편양언기 선사의 일대기를 소설화 한 〈양치는 성자〉를 비롯해, 서옹 대종사의 뜻을 받들어 〈임제록 연의〉를 편집하기도 했다. 진묵대사, 초의선사, 동산대종사, 완당 김정희, 만암대종사, 성월선사, 혜암종정, 오세동자, 인곡대선사, 부설거사, 연선도인 등을 집필했다.

문도를 대표해 진우 스님은 "참석해주신 대덕큰스님들께 감사드린다. 제자인 제가 잘 모셨더라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함께 하셨을텐데, 참회의 마음과 함께 송구스럽다. 참석해주신 고귀한 뜻을 깊이 새겨 앞으로 큰스님의 뜻에 따라 선과 경전 공부에 정진하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이어 운구는 경내 쌍계루를 지나 다비장으로 운구됐다. 이어 거화와 함께 한줄기 연기와 함께 세연의 끝을 맺었다. (061)392-7502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신성민 기자

아찔한 방화…조계사 야간경보 추진한다

서울 조계사는 6월 24일 "서울시, 종로구청과 논의하여 매일 오후 10시 이후 대웅전 기단부 통행시 경보가 울리는 야간경보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사의 이런 입장은 6월 19일 일어난 대웅전 방화사건으로 기인한 것이다. 조계사는 6월 19일 한밤 중인 오전 2시 대웅전 북측 외벽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을 발견, 이를 긴급 진화하고,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송 모 씨(35)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송 모 씨는 당시 외벽기둥과 신발장 사이에 배낭을 놓고, 이 배낭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마침 경비를 서던 조계사 직원들이 조기에 발견하여 119 등에 신고 후 15분 만에 소화기로 진화,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 실장은 이어 "오후 10시 이후에 기단부 이상 접근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 설치를 모색 중이다. 서울시에서도 이번 사태로 사후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